2026.07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51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의료법인 나눔과행복의료재단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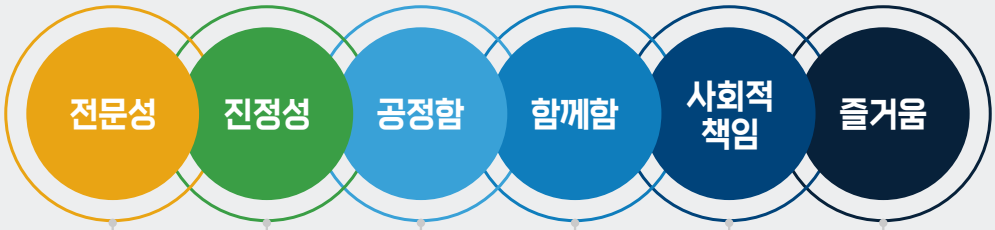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비전 2030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핵심가치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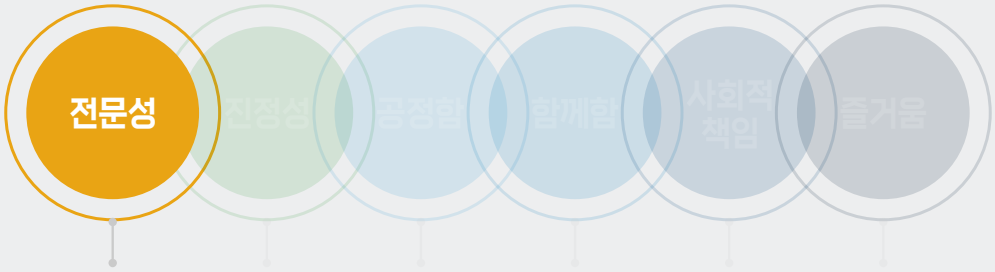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화 Hands-on

백선미 병원장님 교육 강의 (07.11)

지난 7월 11일 서울 캐논타워에서 열린 '제9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화 Hands-on 교육'에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백선미 병원장님이 갑상선 낭성결절의 에탄올절제술(EA)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갑상선 초음파 진단과 세침흡인검사, 중심부바늘생검, 에탄올절제술 및 고주파절제술의 이론과 실제 술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은 에탄올절제술의 적용 대상과 시술 원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 통증·출혈·에탄올 누출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시술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갑상선 낭성결절과 다양한 경부 낭성 병변의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병변의 성분과 특성에 따른 시술 방법 및 치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강의 후 진행된 실습에서는 참가자들이 초음파를 이용해 병변과 주변 구조물을 확인하고, 바늘의 진입 방향과 위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직접 연습했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을 비롯한 강사진은 초음파 화면에서 바늘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과 안전한 시술을 위한 주요 주의사항을 지도했습니다.



평소의 노력이 만든 값진 인증 결과

재활의료기관 인증 중간현장조사 실시 (07.10)

지난 7월 10일, 우리 병원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인증 중간현장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 각 부서는 시설과 환경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련 서류와 점검표를 정비하는 등 맡은 자리에서 차분하게 인증 준비를 이어왔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전 직원이 단정한 복장과 밝은 표정으로 조사위원을 맞이하였으며, 정확한 환자 확인과 손 위생, 환자정보 보호 등 기본 원칙을 충실히 실천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업무와 부서 운영에 대해 자신감 있고 성실하게 설명하며 평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중간현장조사에서는 개선사항 1건이라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사위원은 병원 시설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태도와 업무 수행 모습에서 평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밝은 표정과 정중한 인사,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며 자신감 있게 응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감사한 피드백도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과 서류를 점검하고 환자 곁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모든 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인증 준비와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갑상선유방센터 임명식 개최 (06.30)

이번 임명식은 갑상선유방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보직자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갑상선유방센터 센터장 겸 부장에 신수영, 부장에 김현수, 과장에 신민지 의료진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께서는 갑상선유방센터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축하하시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진료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1,500례 달성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숫자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태한 경영분석실장, 센터의 소중한 순간들을 역사로 기록해 주신 김동하 홍보팀장, 그리고 1,500례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오신 갑상선유방팀 모든 구성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I 활용 역량 강화 및 내부코치 양성과정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 (06.30)

지난 6월 30일, 이룸재활운동센터에서 'AI 활용 역량 강화 및 내부코치 양성과정'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10명의 직원이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의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은 각자의 부서와 업무 특성에 맞춰 AI를 활용한 사례와 변화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문서 작성, 업무자료 정리, 콘텐츠 제작,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용한 경험이 소개되었으며, 실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 사례도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심사와 총평이 진행되었으며, 우수 발표자 시상과 수료증 수여를 통해 교육생들의 노력과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교육과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생들이 각 부서의 내부코치로서 동료 직원들의 AI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은 AI를 활용한 업무 개선과 조직 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1. 왜 시작했을까? AI, 배우는 것을 넘어 업무에 적용하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문화를 만들기 위해 「AI 활용 역량 강화 및 내부코치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AI 도구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성장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

개발환경 구축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교육생 각자가 실제 병원 업무 개선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실습 과정에서는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 회차마다 진행 상황과 개발 결과를 공유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업무 개선 아이디어와 구현 방식을 함께 학습하고, 다른 교육생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협업 중심의 학습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과정	일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기초과정 1회	2026.01.13	AI 기초 및 프롬프트	AI 개념, 생산형 AI 이해, 병원업무 활용 사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기초과정 2회	2026.01.28	AI 도구 활용	주요 생산형 AI 및 업무지원 도구 소개, 분야별 AI 활용 사례
심화과정 1회	2026.02.10	AI 사고방식	AI 기반 문제 해결 접근법, 업무 분석 및 AI 적용 사고방식
심화과정 2회	2026.02.24	데이터 구조	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베이스 이해, 시스템 설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심화과정 3회	2026.03.17	대시보드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 구축, 실무 데이터 분석
심화과정 4회	2026.03.24	개발환경 구축	개인 노트북 개발환경 구성, 웹 개발 도구 설치 및 환경 설정, 기본 사용법 교육
심화과정 5회	2026.04.14	개발환경 활용	개발환경 점검 및 실습, 웹 개발 기초, 개발 도구 활용 방법 교육
심화과정 6회	2026.04.28	프로젝트 실습	개인 프로젝트 개발, 결과 공유 및 피드백
심화과정 7회	2026.05.12	프로젝트 실습	기능 구현 및 프로젝트 공유, 상호 피드백
심화과정 8회	2026.05.26	프로젝트 실습	프로젝트 고도화, 사례 공유 및 개선
심화과정 9회	2026.06.09	프로젝트 완성	프로젝트 완성, 최종 리뷰, 발표 준비
심화과정 10회	2026.06.30	결과 발표회	프로젝트 발표,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



김 대 용 강사
원무팀 파트장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3. 우리가 만든 변화 AI가 바꾼 우리의 일상



1) 펜에서 클릭으로
- 당직 배정 자동화 프로젝트

재활치료1팀
김동호 주무

[업무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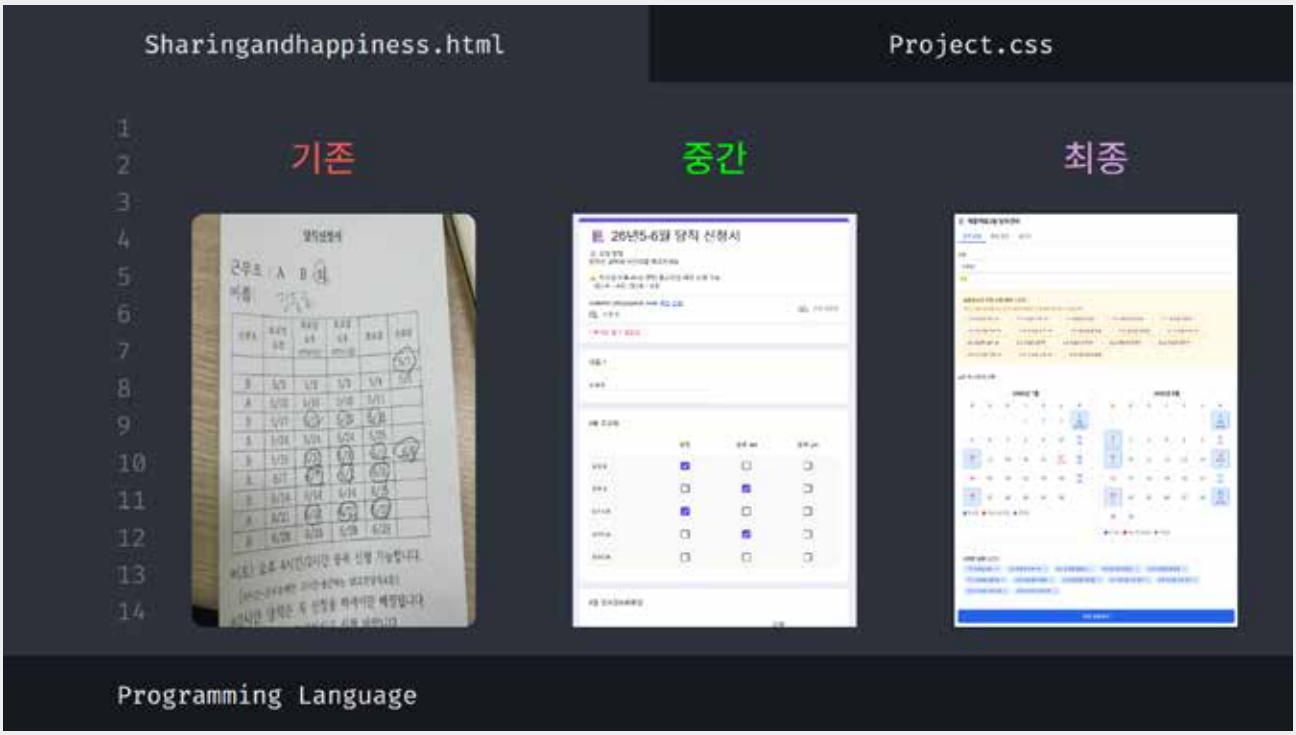
10년 이상 지속된 치료팀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30명이 넘는 인원의 '재활1팀 당직 배정 시스템'은 종이로 신청을 받아 당직표 제작부터 취합, 배정, 공지까지 약 2시간 30분이나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공정한 당직 배정을 위해 담당자가 수동으로 신청 내역을 여러 번 교차 검증해야 했기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적 스트레스가 매우 컸습니다.

[AI활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브코딩 프로그램인 'KIRO'를 활용했습니다. 10년 넘게 담당자들의 머릿속에만 있던 전통적인 배정 규칙을 코딩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냈습니다. 두 달여간 담당자와 소통하며 구글 시트와 설문지를 활용한 초기 버전을 만들었으나, 신청자 입장에서의 가독성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코드를 'Github'에 저장하고 'Vercel'을 통해 정식 웹 앱(Web App) 형태로 배포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달라진점]

웹 앱 도입 결과, 기존 2시간 30분이 걸리던 당직 배정 업무가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동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던 담당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공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확입니다. 우리 병원 내에는 여전히 수동 업무와 반복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업무들도 개선하여, 많은 직원이 본업 외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우리가 만든 변화 AI가 바꾼 우리의 일상



2) 코딩은 몰라도 AI는 압니다
- 물리치료사의 병원 업무 디지털 전환 도전기

재활치료1팀
윤찬우 파트장

[업무고민]

재활치료 1팀의 파트장이자 일상재활센터(낮병동) 매니저를 맡게 되면서, 치료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행정 업무와 관련 정보들을 이해하고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팀원들도 비효율적인 반복 행정 업무로 인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고,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본연의 치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근무 체계가 다르다 보니 구글 드라이브와 카카오워크를 사용함에도 정보가 흩어져 있었고, 업무 공유가 번거로워 실시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AI활용]

6개월간의 내부 직원 AI 코치 양성과정과 심화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AI 기술을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닌 현장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으로 바라보고, 병원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비전문 개발자이지만 교육을 통해 배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생성형 AI,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 다양한 AI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Google Drive, NotebookLM, Google Sites를 연동하여 일상재활센터 관련 자료와 부서 간 업무 공유를 위한 '통합 업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협업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둘째, 실습생 평가, 의료기기 일상점검, 치료도구 수량 체크의 디지털화를 위해 생성형 AI인 Antigravity와 Kiro를 이용해 코딩 작업을 진행했고, Github과 Vercel을 통해 접근성이 뛰어난 전용 웹 애플리케이션을 정식 배포했습니다. 셋째, 비록 의료 데이터 보안 문제로 최종 사용은 중단되었지만,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 인수인계 데이터를 NotebookLM에 학습시켜 참여자별 재활 목표와 주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AI 챗봇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달라진 점]



일상재활센터 통합 업무 공유 플랫폼과 실습생 평가, 의료기기 일상점검, 치료도구 수량 체크의 디지털화로 행정 업무 효율이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실시간 협업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행정 업무 피로도가 줄어 치료사들이 참여자 중심의 재활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컴퓨터 언어를 모르는 비전문가도 AI를 파트너 삼아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며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와 의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의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의 첫발을 내딛었으니, 앞으로 실제 사용성을 검증하며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병원 내 행정 전반으로 AI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가 얻은 AI 활용 노하우와 보안 수칙을 병원 내부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동료들이 안전하고 똑똑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전환의 조력자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3. 우리가 만든 변화 AI가 바꾼 우리의 일상



3) 날짜변경도, 담당과가 아니어도 무섭지 않다!! 대장약설명!!!
- 언제든 확인가능한 웹

내과내시경팀
황 혜 령 파트장

[업무고민]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내시경 후 설명대기 시간동안 '물은 마셔도 되나요?' 라고 외래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 약 복용법은 복잡해서 상담 후에도 다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잦고, 예약이 변경될때마다 안내문자를 일일이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시경 직후 몽롱한 상태에서 들었던 식이, 주의사항은 환자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질문과 안내의 공백을 줄이고자, 장정결제 약복용법과 내시경후 식이안내&주의사항을 담은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AI활용]

처음에는 구글 사이트로 시작해,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안티그래비피를 활용해 웹을 설계했고, 깃허브와 버셀을 이용해 실제 서비스 형태로 배포했습니다. 또한 이 웹으로 연결되는 QR 코드도 만들어 대기시간동안 확인할수도 있고, 내시경전 안내문자 보낼 때 링크를 같이 첨부하려고 합니다.

[달라진 점]

단순히 문의 횟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야간 당직이나 타 부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내 업무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 치료와 케어라는 본연의 전문적인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 우리가 만든 변화 AI가 바꾼 우리의 일상

4) 오토매틱 – 일상을 보조하는 도구의 작은변화!!



재활치료2팀
김 종 태 부팀장

[업무고민]

업무를 하다보면, 팀원들에게 업무 관련 문의가 다양하게 들어오고 그와 관련된 답변을 위해 업무지침을 찾아보거나 해당 팀에 문의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다보니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 답변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고, 업무와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매주 시행하는 컨퍼런스 대상자를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코디는 매주 월요일 구글 캘린더에서 컨퍼런스 대상 참여자를 검색하고 전체 시간표에서 참여자 담당 치료사를 확인하여 팀 단톡방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코디 업무 중 정기적고 고정된 형식의 업무로 자동화를 통해 매주 발생하는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AI활용]

보다 효율적인 업무로 업무 시간 지연과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화를 통한 업무시간 확보를 위해 구글 앱 스크립트(GAS)를 기반으로 챗봇을 만들었고, 구글캘린더-구글드라이브-카카오워크(웹훅)를 연동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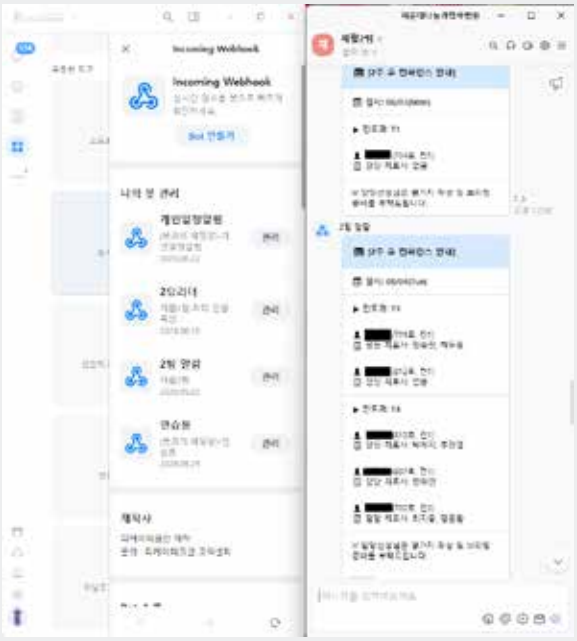
챗봇의 베타버젼은 만들었으나, 원하는 만큼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 버전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함을 느끼고, 기존에 만들어진 “노트북L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챗봇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챗봇 개발은 포기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컨셉의 챗봇을 만들어 팀원들이 필요한 질문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카카오워크 웹훅”과 “구글 앱 스크립트”를 이용한 자동화된 메시지 전송으로 코디가 일일이 구글캘린더와 드라이브의 내용을 검색하고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월요일 2주뒤에 진행 예정인 컨퍼런스 대상자와 당일 컨퍼런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단톡방으로 전송해주어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자동화를 통한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고, 조금이나마 업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교육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더욱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와 개선이 필요한 업무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3. 우리가 만든 변화 AI가 바꾼 우리의 일상

5) 엑셀 수기에서 스마트 웹앱으로 재활치료팀 업무 혁신 프로젝트



재활치료1팀
김 태 영 주무

[업무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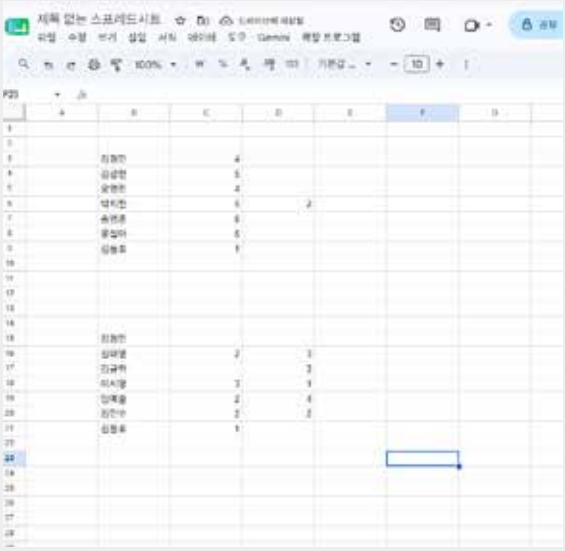
매일 치료사들의 출석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이름과 숫자를 엑셀 파일에 하나하나 수기로 입력하고, 이 수치가 EMR 청구 건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눈으로 대조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특히 주어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수작업을 마쳐야 하다 보니, 어쩌다 오타나 계산 오류라도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하는 과정이 무척 번거롭고 까다로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오류 없이 완벽하게 청구 건수를 맞춰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불편함을 겪으며, 조금 더 간편하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EMR과 자동으로 비교하여 틀린 부분만 빨간색으로 빠르게 찾아줄 수는 없을까 하는 간절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AI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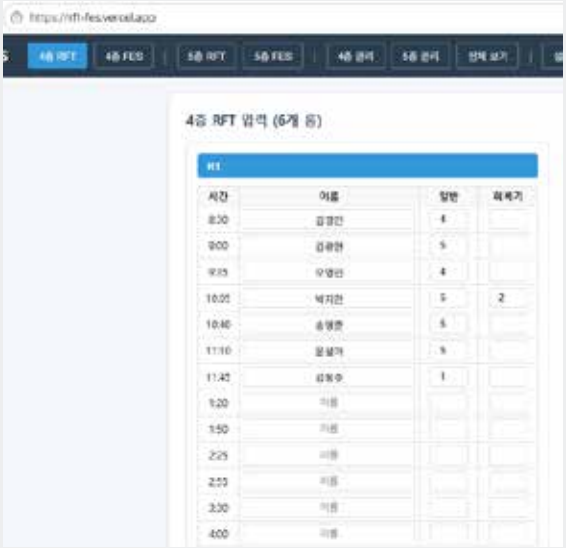
코딩을 전혀 모르는 비개발자 직원이지만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최신 AI 기술들과 함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Gemini와 Kiro AI를 든든한 파트너로 삼아 층별 입력과 EMR 자동 비교 등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설계해 나갔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통계 분리가 안 되거나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술적 오류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완성되는 자동화는 없기에 동료 치료사들의 현장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AI와 소통하며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다듬었습니다.

[달라진 점]

웹앱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기존에 평균 25분씩 걸리던 수기 통계 서류 작업 시간이 15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겪어야 했던 시간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작업 효율이 40% 이상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EMR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만 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대조해 주기 때문에 수기 작성 중 생기는 실수를 제로에 가깝게 방지하고 청구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개발자라도 현장의 불편함을 AI와 함께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소중한 디지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통계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이어가며 더욱 스마트한 재활치료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3. 우리가 만든 변화 AI가 바꾼 우리의 일상

6) 감시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소통으로 – OKR 달성을 위한 모바일 모니터링 구축기



재활치료2팀
길 향 현 파트장

[업무고민]

저희 팀은 '처방된 치료시간을 온전히 보장한다'는 팀 목표(OKR)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초반 계획대로 하면 요원이 종이판을 들고 치료사별 정시 시작 여부를 일일이 수기 체크하고, 지연 발생 시 사유를 손으로 적은 뒤 사무실로 돌아와 엑셀에 재입력해야 했습니다. 현장 개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관리자가 과도한 행정 피로에 지쳐버릴 것이 불 보듯 뻔한 구조적 비효율이 존재했습니다.

[AI활용]

이 소모적인 수작업을 없애고자 직접 모바일 웹앱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개발 지식이 부족했지만, AI 도구인 'Antigravity'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코드로 정의해 나갔습니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위해 React와 Tailwind CSS를 활용했고, 기록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도록 데이터베이스인 Firebase를 연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내 어디서든 즉시 접속할 수 있도록 Vercel 플랫폼을 통해 배포를 마쳤습니다.

[달라진 점]

웹앱 도입 후 무거운 종이판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현장 라운딩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자를 선택하고 터치 한 번으로 3초 만에 기록이 완료되며, 예외 상황 발생 시 팝업창으로 지연 사유를 원터치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기 행정이 사라지고 실시간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이 데이터는 리더의 추측이 아닌 객관적 지표로서, 병동 협조 요청이나 인력 충원 등을 경영진에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DX)의 본질은 감시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환경 개선과 소통'에 있음을 배웠고, 앞으로도 이를 통해 치료 환경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3. 우리가 만든 변화 AI가 바꾼 우리의 일상



7) 인사 데이터가 한눈에!
- Looker Studio로 완성한 실시간 인사통계 대시보드

HR팀
한 성 자 주무

[업무고민]

기존의 인사 데이터 관리는 방대한 직원 정보와 입·퇴사 기록이 여러 수동 시트에 산재해 있어, 전체적인 인력 현황과 근속연수, 부서별 이탈률 등의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월 데이터 취합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오류의 리스크가 항상 존재했고, 단순 반복적인 집계 업무로 인해 정작 중요한 인사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제도 개선이나 부서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AI활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사내 인사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 분석 도구인 '구글 루커 스튜디오(Looker Studio)'를 활용하여 실시간 '인사통계 대시보드'를 구축했습니다. AI 심화과정에서 학습한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재직자, 입사자, 퇴사자 등 주요 지표를 대시보드 상단에 배치하고, 월별 추이와 연도별 입·퇴사자 수, 부서별 및 근속연수별 분포를 한 화면에 시각화했습니다. 나아가 차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퇴사율 현황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운영 부서의 특징을 찾아내는 등 데이터 기반의 핵심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인사통계 대시보드 도입을 통해 인사 통계 집계 및 리포팅 업무가 실시간 자동 시각화로 전환되어 즉각적인 현황 파악을 가능케 하고, 단순 수치 제공을 넘어 인사구조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경영진과 실무부서가 함께 실시간으로 논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다만, 이번에 구축한 대시보드는 최종 완성형이 아닌 첫 단추를 채운 미완성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앞으로 팀원들과 리더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여 데이터 필터를 세분화하고 리포트 예측 기능을 추가하는 등 대시보드를 끊임없이 다듬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사 전략 수립과 조직 관리에 완벽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병원 인사 운영의 진정한 디지털 전환(DX)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 우리가 만든 변화 AI가 바꾼 우리의 일상

8) 의무기록 업무의 새로운 길잡이
– NotebookLM AI 매뉴얼



원무팀
김 태 일 주무

[업무고민]

의무기록사 업무는 병원 규정집,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각종 업무 지침 등 숙지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하며,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문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업무를 하는 직원의 교육도 메뉴얼이 없어 숙련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고민했습니다.

[AI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ChatGPT와 Gemini를 활용하여 병원 규정집, 인증평가 기준, 의무기록 관련 업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자료를 제거했습니다. 이후 정리된 자료를 NotebookLM에 구축하여 출처 기반의 AI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자연어로 질문만 입력하면 AI가 관련 규정과 업무 지침을 검색하여 답변을 제공하고, 답변의 근거가 되는 문서와 출처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무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달라진 점]

NotebookLM 기반 AI 업무 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여러 문서를 직접 찾아보던 과정을 대폭 줄이고, 필요한 업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규정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실무자 간 해석 차이를 줄이고 업무의 표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 역시 AI를 활용한 질의응답과 자가학습을 통해 보다 빠르게 업무를 익힐 수 있으며, 앞으로도 최신 규정과 실무 사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병원의 지식 자산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AI 기반 업무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3. 우리가 만든 변화 AI가 바꾼 우리의 일상

9)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오디오
- 브루로 막히면 구글비디오로 뚫어버리기!



건강증진팀
김 수 정 파트장

[업무고민]

■ 검진 항목에 따른 복잡한 의상 탈의 체계검진센터를 방문하는 검진 고객은 검진 종류에 따라 총 3가지 유형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상의만 탈의 / ② 상의 + 구멍이 없는 일반 바지 / ③ 상의 + 구멍이 뚫린 대장내시경 바지]로 구분되어 있어 고객 입장에서 혼선이 자주 발생합니다.

■ 지속적인 반복 안내 업무와 현장 인력 공백 발생 고객의 올바른 탈의를 돕기 위해 직원이 매 탈의 시점마다 1:1로 동행하며 안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곧 검진센터 전체의 업무 로딩(과부하)과 현장 공백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존재했습니다.

[AI활용]

■ [1단계] 초기 시도와 프로그램 간 호환성 장벽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안내 가이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그마(Figma)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가이드의 뼈대를 설계했습니다. 이후 브루(Vrew)와 캔바(Canva)를 도입하여 가이드에 필요한 음성 및 클릭 기능(클리커)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각각의 AI 프로그램에서 만든 결과물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호환성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기능을 살리면 저 기능이 안 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 [2단계] 다중 AI 융합을 통한 돌파구 마련원무과 김대용 파트장님의 추천으로 '구글 비디오(Google Vids)'를 새롭게 도입하며 프로젝트를 재시작했습니다. 구글 비디오를 통해 가이드에 딱 맞는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종 구현을 위해 여러 AI 툴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피그마로 뼈대와 클리커 기능을 만들고, 구글 비디오로 영상과 음성을 입혔으며, 안티그래비티(Anti-gravity)를 활용해 구글 비디오의 자동재생 기능과 웹 소스 코드를 생성했습니다. 완성된 개발 소스는 깃허브(GitHub)에 안전하게 저장한 후, 최종적으로 버셀(Vercel) 플랫폼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구동 가능한 웹 가이드 형태로 성공적으로 배포했습니다.

[달라진점]

■ 문제 해결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장 큰 변화는 업무 중 궁금한 점이나 막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 즉각적으로 'AI 모드'를 열어 검색하고 해결책을 찾는 새로운 습관이 정착된 점입니다. AI의 정보 처리 능력과 검색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강력했으며, 적절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업무에서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AI 도입에 따른 사색의 소실 우려와 경각심한편으로는 업무 처리가 너무 빠르고 편리해지다 보니, 인간으로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고유의 사색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단점 및 경각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 종합 시사점 및 제언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면서 프로그램마다 가진 명확한 장단점과 기능적 한계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주체인 사람'이며, AI에 무조건 의존하기보다는 적절히 필요한 순간에 통제하고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성을 무한하게 생산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3. 우리가 만든 변화 AI가 바꾼 우리의 일상

10) 가정의학과 황은교 과장님 참여소감



가정의학과
황은교 과장

"업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던 실무자가
이번 AI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나아가 AI 기술이 가진 한계와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판별하여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 앞으로의 변화

이번 AI 교육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시도들이 모여 더 나은 업무와 더 나은 병원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5기 신입직원온보딩_1차 OT (07.09)

5기 신입직원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신입직원 온보딩 1차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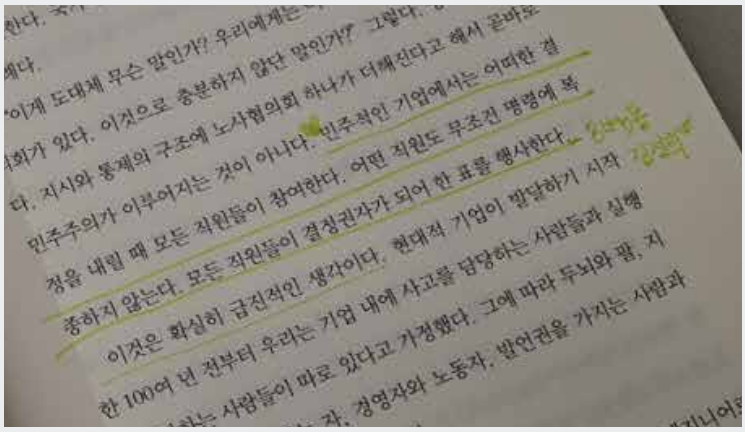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신입직원들이 병원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고, 같은 출발선에 선 동기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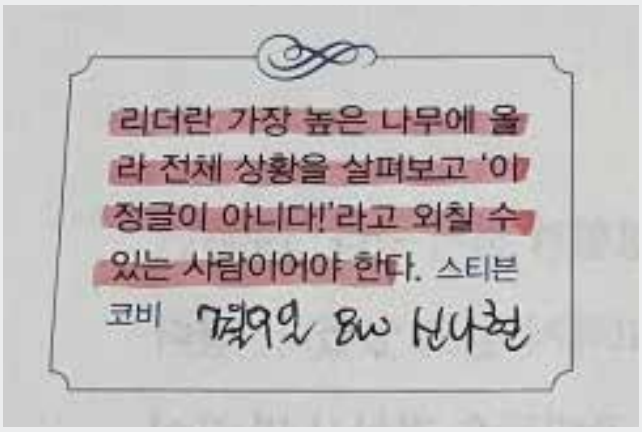
이어진 병원 소개와 핵심가치 공유를 통해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추구하는 방향과 '사람을 봅니다'라는 미션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고, 시설 라운딩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병원의 환경과 환자 중심의 가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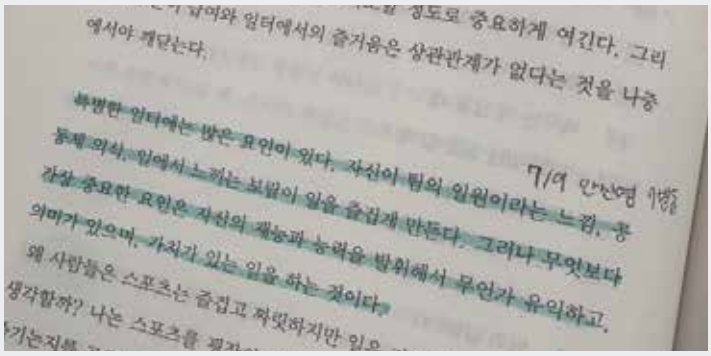
이번 온보딩은 새로운 직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료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입직원들이 해나행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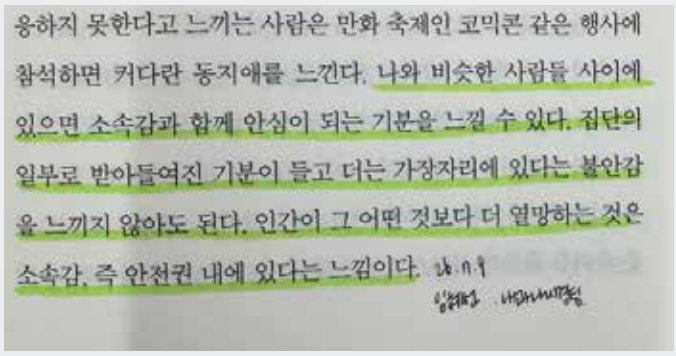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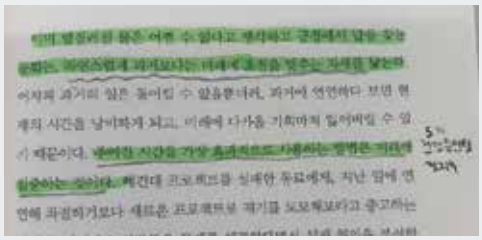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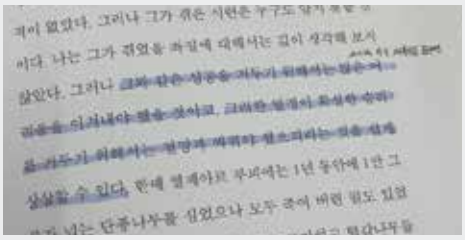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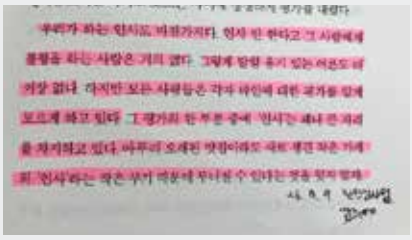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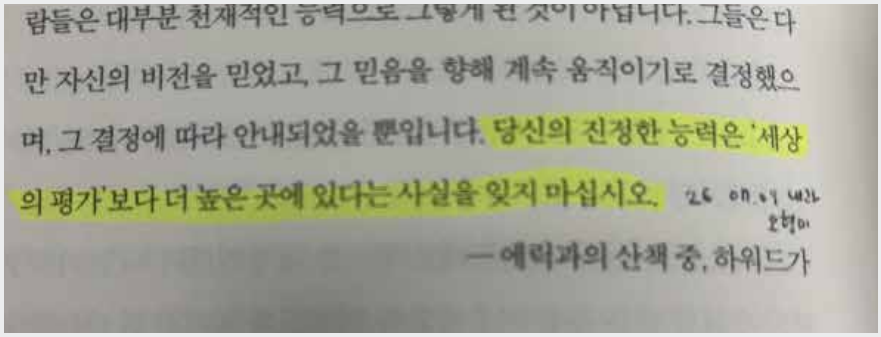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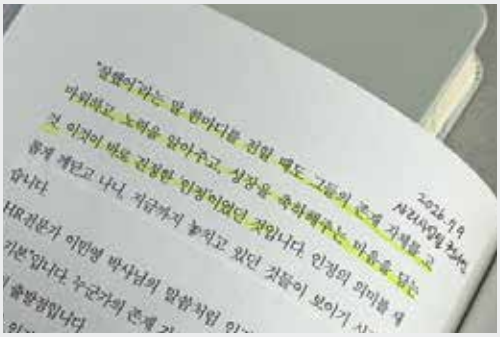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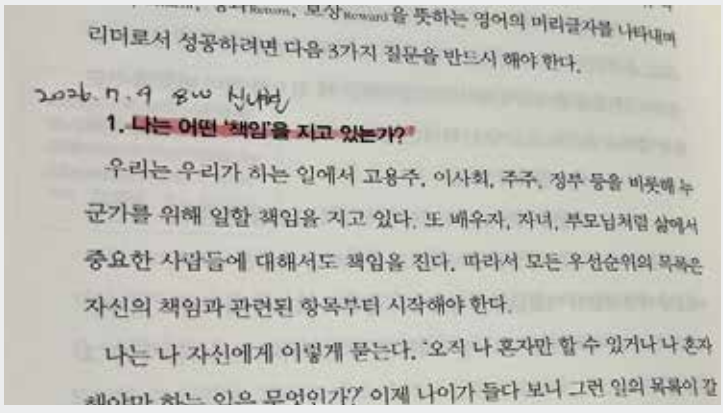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4기 신입직원온보딩_3차 수료식 (07.24)

입사 후 약 100일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는 4기 신입직원 온보딩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단순한 교육의 마무리가 아닌, 입사 후 경험한 성장과 변화를 스스로 돌아보고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입직원들은 '입사 후 100일 ± 나의 결정적 순간'을 주제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을 선정하여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고, 그 순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진솔한 소감을 작성했습니다.

수료식 당일에는 각자가 선택한 사진을 중심으로 병원에서의 적응 과정과 배움, 감사했던 순간, 앞으로의 다짐을 발표하며 지난 100일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성장뿐 아니라 함께 걸어온 동료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온보딩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넘어, '해나행의 일원으로 성장해 온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걸음을 함께 응원하는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4기 신입직원들이 병원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해나행의 일원으로 입사한지 어느덧 100일입니다.
입사 첫날 낯선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했던 순간들이 생각이납니다.
다행이 선생님들께서 따뜻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실수도 있었지만 덕분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일동안 일을하며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도 몸소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배우며 노력하는 해나행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6생활재활파트_이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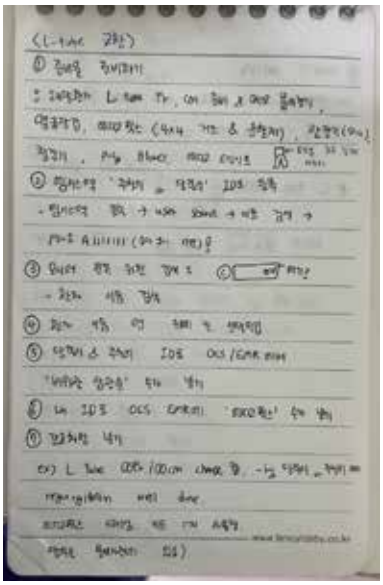
저는 나눔과 행복 병원이 좋습니다. 꼭맞는 맞춤옷을 입은것처럼 느낌이 좋았습니다.
엄마에게.모든걸 의존해야 하는 백일의 아기처럼 서툴고, 두렵지만 점점 혼자힘으로 기고 잡고 일어서고 걷는 돌을 지나는 아기처럼 점점 더 성장해 가는 1년 후의 저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좋은 병원에 들어온 거 같아 저는 행운아라 생각합니다. 해나행의 일원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5생활재활파트_금미숙



저희 병동에 위관영양을 하는 참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언어장애까지 있으셔서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더욱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와 의심이 많으셔서 저를 꺼려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인이라고 말씀드려도 믿질 않고 베트남이나 중국사람으로 오해하셔서 저를 상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아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불편한 게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해드리고자 힘썼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돌본지 두달 남짓 지나자 드디어 그분의 말씀도 얼추 다 알아듣게 되었고 저에 대한 경계심을 거둬주셨습니다.
요즘은 참여자들을 돌봐드리는 데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사람 중심의 미션을 실천하는 나눔과행복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자들을 돌볼겠습니다.

5생활재활파트_정성희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업무를 배우고 익히며 해나행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위해 다듬어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팀 안에서 맡은 역할을 분명히 하고,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8생활재활파트_박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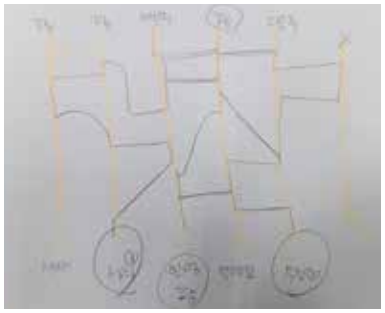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간호사가 되어 처음 제 명찰과 뱃지를 받았던 순간입니다.
이때는 설렘도 컸지만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100일 동안 실수도 많이 하고 다니는 내내 걱정도 많이 했지만 같은 병동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생활재활파트_우나은



HR팀의 빌런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잔소리를 듣고 때로는 우쭈쭈 관리를 받으며 관심받는 막둥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다들 일잘러에 노력형이라 아직은 가랑이가 찢어지지만 좋은 팀원들을 만나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HR팀 _안혜진



입사 후 몇주동안 병원 시스템과 많은 치료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만큼 제 치료실 책상 위에는 종이와 워크북이 쌓이고, 연필과 지우개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점점 익숙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치료실도 다시 원래 모습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치료실이 정말 제 공간처럼 느껴지고, 저도 이 병원에 조금씩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_송지은



100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경력이 있었지만 재활병원도, 통합병동도 처음이었기에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덕분에 오늘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조금씩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활간호의 가치를 느꼈고, 함께 근무하는 선,후배선생님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점점 익숙해지며 적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앞으로의 100일은 적응을 넘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가 되도록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6생활재활파트_장지은



온보딩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는 것은 어느덧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었다는 뜻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으면서도 아직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업무와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고 느끼며, 내년 이맘때 지금의 저를 돌아봤을 때 "그땐 그랬지." 하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잘 적응하고 성장해 있겠습니다!

7생활재활파트_김혜원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밖으로한걸음씩1 (07.02)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위해 병원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전화 안내로는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아쉽게도 이번에는 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방문 시에는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휠체어로 작은 턱을 넘고 횡경사 구간을 지나며 이동 연습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초반에는 안정적인 자세로 스스로 이동하셨으며, 중반 이후에는 체력적인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셨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다이소에 들러 필요한 생활용품을 함께 살펴보고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처 카페를 방문하여 잠시 쉬어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 속 공간을 직접 이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려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보호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말에 방문 예정인 어머님과 함께 7월 25일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가 함께 퇴원 이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밖으로한걸음씩2 (07.09)



복학을 앞둔 참여자와 함께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여 교내 환경과 이동 동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캠퍼스는 참여자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캠퍼스 곳곳을 둘러보며 이동 환경을 확인하였습니다. 넓고 쾌적한 교내에는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층간 이동이 편리하였고, 장애인 화장실도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이용에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 입구에서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까지는 다소 가파른 경사길이 있어, 등교 시에는 택시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복학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학비 및 보조기기 지원, 학습지원, 필요 시 시험 시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며, 대학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간 간격이 다소 좁아 휠체어 이동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지정좌석을 미리 협의한다면 보다 편안한 수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져 이동 부담이 크지 않았으며,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약 5~7분 정도로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참여자의 변화였습니다.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며 "그리웠던 것 같다", "여러 감정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복학을 향한 설렘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별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을 이어가며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캠퍼스 환경 또한 자립적인 이동과 대학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참여자가 더욱 주도적으로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호자 역시 점차 심리적·물리적 도움을 줄여가며 서로의 독립적인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캠퍼스 방문은 단순한 사전 답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7.10)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해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과 성실한 참여가 모여 만들어낸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 출석왕 박○수 님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동행해주는 아들 감사합니다."
- 출석왕 신○열 님
  "항상 반겨주시고 조심해라 해주는 낮병동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 자립왕 서○용 님
  "낮병동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 자립왕 안○자 님
  "열심히 했더니 상도 주고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의 노력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는 이 시간이 참여자분들께 또 하나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낮병동 일상재활센터는 일상 속 작은 변화와 성장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체험 (07.14)

당초 4명의 참여자가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2명이 불참하여 최종 2명이 양궁 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된 덕분에 참여자 개개인에게 충분한 지도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안전하게 체험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활을 당기는 동작은 예상보다 많은 근력이 필요해 참여자마다 체험 방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수 손상 참여자는 선수의 도움을 받아 활을 당기고 발사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흉수 손상 참여자는 리커브 활은 스스로 조작하고 컴파운드 활은 일부 도움을 받으며 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각자의 신체 기능에 맞춰 체험을 이어가며 양궁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실제 양궁장에서 체험을 진행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양궁을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활시위를 당기고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는 순간마다 참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고, 서로를 응원하며 즐겁게 체험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체험은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을 느끼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슬기로운재활생활 (07.08)





7월 슬기로운재활생활 네 번째 교육은 재활치료 2팀 백영수 팀장님께서 '작업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작업치료의 개념과 목적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과 개인의 기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작업치료가 신체기능 회복을 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재활치료임을 알기 쉽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재활치료 기간, 강직 관리 등 평소 재활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을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준비된 시간을 모두 채울 정도로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이 참여자들에게 작업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회복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재활 의지를 더욱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험 (07.14)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일정은 9월 5일(토) 오후 3시 30분, 7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룹치료 (07.11)



재활2팀과 사회사업팀이 함께하는 그룹치료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여름맞이 밀짚모자 꾸미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름 초성퀴즈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꾸미기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밀짚모자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모루, 폼폼, 레이스, 스팽글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꽃, 동물, 글씨 등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이 담긴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활동에 앞서 어떤 모자를 만들지 미리 구상해 온 참여자도 있었으며, 제작 과정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에는 "여름에 외출할 때 쓰고 싶다.", "손주에게 선물하면 좋아할 것 같다." 등의 이야기가 오가며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보호자와 함께 참여한 경우에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그룹치료는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참여자들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2팀과 사회사업팀은 참여자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룹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6년 2분기 근접오류 보고 우수 부서 선정!

★★★

2026년 2분기 최고의 환자 안전 지킴이

재활치료1팀



근접오류 보고 TOP4



재활치료1팀	6건
8층 생활재활센터	5건
6층 생활재활센터	2건
5층 생활재활센터	2건

근접오류는 비난이 아닌 배움의 기회입니다.
환자 안전도 지키고! 포상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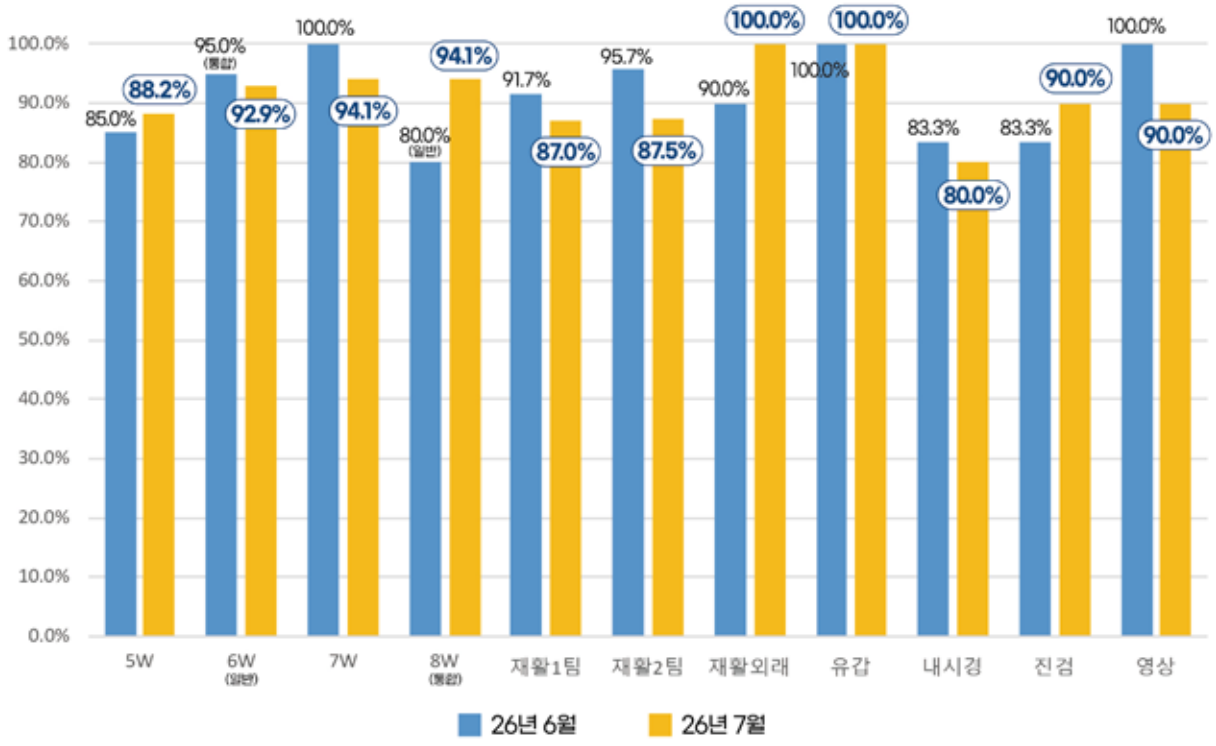
2026년 7월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07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6년 6월 결과와 비교 분석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63	147	90.2%	- 0.7%

7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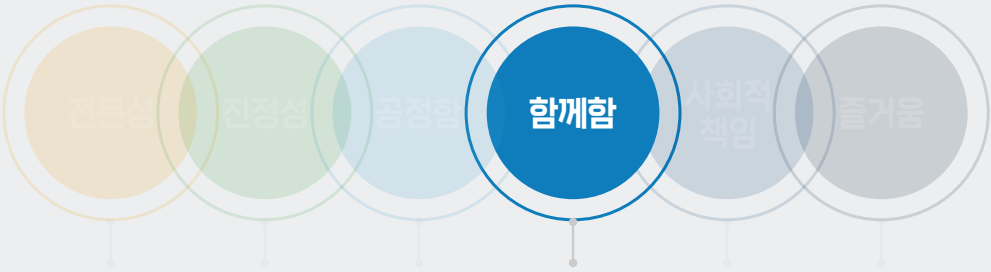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내과내시경팀 최지은 주무





재활치료1팀 이재관 주무



사회사업팀 김지헌 팀장

우리는 가족입니다.
07월의 신규입사자



진단검사팀
김 주 영 임상병리사



영상의학과
신 민 지 과장



재활간호팀(8W)
이 순 영 간호조무사



건강증진팀
정 지 우 팀원



재활간호팀(7W)
김 형 진 간호사



내과내시경팀
임 혜 선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7W)
안 신 영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임 수 원 간호사



내과내시경팀
오 형 미 간호사



재활간호팀(7W)
피 지 유 간호사



총무팀
김 현 중 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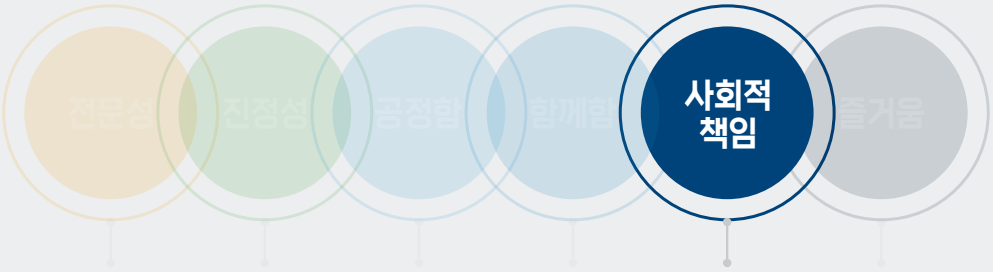
내과내시경팀
김 진 아 간호사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희망의 스윙, 척수통합재활센터 건립에 힘을 보태다

척수센터 후원회 기부금 전달식 (07.00)

지난 7월 20일 병원 6층에서 「2026 지맥스 SWING FOR HOPE 아마추어 챔피언십 with 사랑의열매」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지맥스는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한 성금 1천만 원을 부산지역 척수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척수통합재활센터 건립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지맥스 정성우 회장님을 비롯해 백선미 병원장님, 척수통합재활센터 후원회 관계자와 부산사랑의열매 관계자 등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척수통합재활센터는 병원 치료를 마친 척수장애인이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통합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훈련,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아우르는 한국형 척수재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은 “척수통합재활센터 건립에 소중한 힘을 보태주신 ㈜지맥스와 참여 기업·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척수장애인들이 재활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과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척수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뜻깊은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이미용 서비스 (07.21 / 07.24)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75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동역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함께합니다

부산도시철도 역명부기 입찰 낙찰 역사 안내시설에 병원명 표기



부산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에서 이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이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부산교통공사가 진행한 2026년 역명부기 유상판매 공개입찰에 참여해 중동역의 부기역명 사용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역명부기는 기존 역명인 '중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근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7월부터 중동역 승강장 역명판과 출입구 안내표지, 외부 폴사인 등에 병원명 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역사 내 노선도와 열차 내 노선도, 열차 안내방송에도 부산교통공사의 정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역명부기 사용권은 2026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유지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가 병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중동역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이 우리 병원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입찰 준비부터 설치까지 애써주신 브랜딩실 박주영 팀원께 감사드리며, 도시철도에서 반가운 우리 병원 이름을 발견하시면 사진과 함께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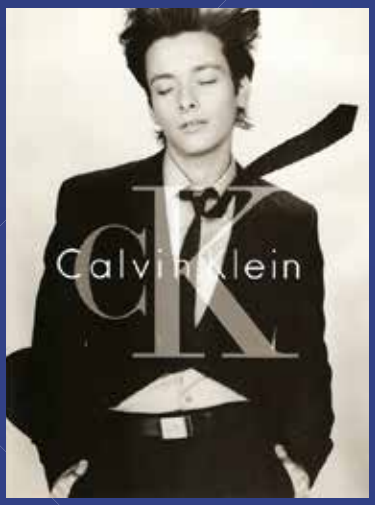


브랜딩실
박주영 팀원

운동
미니멀리즘

PART 2
Kettlebell Swing

김 동 현
청봉기념 이룸재활운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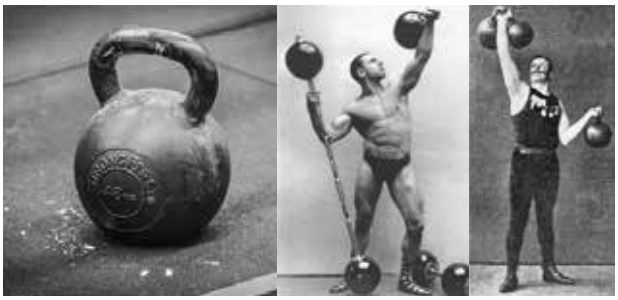


Devoid of decoration.
장식을 덜어낼수록 본질은 선명해진다.

- Calvin Klein

캘빈 클라인은 패션에서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내어 절제되고 단순한 아름다움의 미니멀리스트 패션으로 20세기 시대의 패션을 바꿨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동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에 꼭 필요한 움직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도 26년 1월 칼럼에 이어서 두 번째 미니멀리스트 운동인 케틀벨 스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케틀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틀벨 또는 기랴(Girya)는 대포알에 손잡이가 달린 것처럼 생긴 전통적인 러시아 웨이트 기구입니다. 케틀벨의 역사는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스트롱맨이나 역도선수, 러시아의 학교 체육과 군대 체력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13년에 나온 헤라클래스라는 잡지에서는 그 어떠한 스포츠도 케틀벨처럼 근육질의 몸과 힘을 키우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2010년도 초반 케틀벨이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미디어에서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또는 근육질 몸매를 위한 훈련 도구로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 **케틀벨 라이센스(과거 RKC, 현재 StrongFirst)**를 취득하여 한국에 정식으로 케틀벨 운동법을 전파한 1세대 강사는 5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유명 트레이너나 연예인들이 케틀벨을 아령 또는 소도구처럼 사용하거나(드릴을 망치처럼 쓰는) 잘못된 운동 방법을 매체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20년 가까이 흘러 많이 개선된 것 같지만 로컬 헬스장에 가보면 아직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약은 약사에게, 케틀벨은 RKC 인스트럭터에게"**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있었습니다.

StrongFirst

케틀벨, 바벨, 맨몸운동으로 힘을 과학적이고 검증된 시스템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미국의 근력 단체로 보통의 사람, 또는 약한 사람부터 엘리트 운동선수까지 누구나 최정상의 몸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독할 정도로 고집스러운 완벽한 기술과 안전, 건강한 근력을 추구합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출처: reddit

한 평 체육관

케틀벨은 저렴하고 세월이 지나도 절대 파괴되지 않으며(사용하고 나서 땀을 잘 안 닦거나 너무 험하게 다루면 녹이 슬거나 제품의 질에 따라 도장 정도는 벗겨질 수는 있으나 고장이 나지 않음) **사이즈도 휴대하기 간편해서 한 평 정도의 공간만 있다면 아무데서나 쓸 수 있습니다.** 만약 홈짐을 차린다면 방 안에 부피가 크고 다양하거나 복잡한 기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방 또는 사무실 구석에 한 두 개의 케틀벨만 둔다면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케틀벨을 **휴대용 체육관 또는 한 평 체육관, 한 평 운동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행 중에도 운동을 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케틀벨의 독특한 디자인

케틀벨의 모양과 사이즈는 컴팩트하며 **덤벨이나 바벨로 하기 어려운 가속 운동, 즉 스윙과 스내치와 같은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스트렝스, 여러 스포츠의 지구력, 근육 성장, 체지방 제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케틀벨 만능론이라는 과장된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케틀벨 트레이닝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케틀벨은 협응력과 순발력을 개선시키고,
프로 수준의 전반적인 체력 준비 상태(GPP)를 발달시키며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심폐능력을 향상시킵니다.
(Luchkin, 1947; Laputin 1973, Zikov, 1986; Griban, 1990, Shevtsova, 1993)

1. 케틀벨 스윙은 체지방을 태우는 운동선수 제조기

케틀벨 스윙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훌륭한 체지방 제거 운동이다. 반면 자전거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도 평생 뚱뚱하다.
- 미국의 유명한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코치 Dan John

케틀벨 스윙과 같은 패턴의 운동(스윙보다 조금 더 힘들고 동작이 어려운) **케틀벨 스내치의 경우 1분에 최소 20.2 kcal(시간당 1,212kcal)를 연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1.6K를 6분에 달리는 페이스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트레드밀 고강도 달리기(RPE 15)의 경우에도 1분에 17.1kcal(시간당 1,026kcal)를 소비하는데 케틀벨 스내치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적습니다. 즉 이것은 엄청난 기록이며 이 정도로 많은 칼로리를 연소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빠른 페이스로 언덕을 달리는 크로스 컨트리입니다. 즉,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2. 스피드 지구력

스피드 지구력에 집중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케틀벨 스윙과 같은 퀵 리프트를 하는 동안 스피드가 감소하면 곧바로 운동 세트를 멈추는데 이것의 장점은 다른 지구력 훈련에서 흔히 동반되는 근육통도 비교적 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인의 주 스포츠 종목(마라톤, 육상 등)을 연습하게 해줍니다.**
특히 스윙의 탄도성 부하는 다른 도구로 불가능한 근육의 텐션과 이완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3. 강한 허리와 엉덩이

건강한 허리는 척추에 실리는 힘을 분산시키는 반면, 약한 허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안전한 운동이란 부하를 신체 한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수많은 근육과 관절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틀벨 스윙 시 수축된 둔근, 복부와 압축된 호흡은 가상의 허리 벨트로 허리를 보호합니다.**
허리를 강하게 만들면 엉덩이와 하체를 강하고 볼륨있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4. 관절염 감소

반복적인 탄도성 부하는 관절에 좋습니다.
강한 충격에 노출되는 관절들은 노년기에 들어서는 관절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낮은 부하에만 노출되는 경우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오히려 **충격하중 또는 무거운 하중과 같은 높은 접촉성 스트레스에 적당하고 잦은 빈도로 노출된 관절 연골이 낮은 부하 또는 적은 부하에만 노출된 관절 연골에 비해 달리기나 점프, 일상생활 시 받게 되는 충격에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하중에 가끔씩만 노출된다면 연골은 반대로 연화되어 콜라겐의 응집력을 잃게 되고 퇴화합니다.**

안전수칙

한 번의 완벽한 스윙이 백 번의 스윙보다 낫다.

1.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케틀벨을 떨어뜨려도 무방한 장소에서 훈련합니다. 기술이 능숙해지면 보통 사무실이나 방 구석에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맨발 또는 밑창이 얇고 발가락이 모이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을 권장합니다. 발바닥에는 감각수용체들이 있고 이것은 균형감각 및 협응성을 향상시키는데 신발을 신으면 이 수용체들의 기능을 방해하여 결국 부상이나 퍼포먼스 저하로 이어집니다.

3. 잘못된 자세로 케틀벨 동작을 이어가면 안됩니다. 이는 운동과 안전에 비효율적입니다.

4. 양보다 질에 집중합니다. 피로가 쌓이지 않는 실패지점에 도달하지 않고 동작을 오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동 조절능력을 유지하고 질적인 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반복횟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5. 심박수가 오르면 계속 움직입니다. 세트가 끝난 후 휴식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fast and loose)심장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심박계를 차는 것도 방법입니다.

6. 휴식시간 또는 훈련 종료 후에 허리를 굴곡시키면 안됩니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것은 허리 관절에 남아있는 잠재적인 부하로 허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케틀벨 두 손 스윙



출처: StrongFirst



시작 자세 | 하이크 패스 | 스윙 1 | 스윙 2

케틀벨 한 손 스윙


시작 자세


하이크 패스


스윙 1


스윙 2



김 동 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척수손상센터
작업치료사로 현재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청봉기념 이룸재활운동센터에서
척수손상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
전 일반인 및 선수 트레이너와 정형외과
운동사로 일했다. 케틀벨, 바벨, 맨몸
스트렝스 및 컨디셔닝과 운동 재활 자격
등을 가지고 있다. 취미로 –66kg급
파워리프팅을 하였다.

참고문헌

Hulsey, C.R. 등 (2012),
Comparison of kettlebell swings and treadmill running at equivalent RPE,
J Strength Cond Res 26(5):1203-1207

Porcari, J., Schnettler, C. 등 (2010),
Kettlebells: Twice the Results in Half the Time?, ACE Fitness Matters Jan/Feb 2010

Enter the Kettlebell (Strength Secret of the Soviet Supermen), Pavel

6월의 해나행의 이름 모를 친절 직원!

칭찬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건강증진센터(건강검진) 채혈 하시는 선생님이 고령이신 어머님을 편안하게 채혈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접수처 직원, 유방센터 직원 모두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았어요

유방촬영 담당 선생님이 상냥하고 편하게 해줘서 좋았어요.

사회복지과 직원 친절합니다 특히 임신하신 직원 분!

입간판 모델이신 간호사분 칭찬해주고 싶어요! 성함을 모르겠네요.

6월 18일 건강검진센터 정면에서 오른쪽 분, 도움 받았습니다 다음 진료시 꼭 성함 확인 후 글 올리겠습니다

위내시경을 마취없이 일반으로 했는데도 친절하게 잘 도와주셔서 크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이후 주의사항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혈관 찾기 참 힘든 편인데 **나눔과행복병원 채혈 선생님들** 너무 친절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검진 시 안내하는 간호사님이 참 친절하고 저에게 글씨를 잘 썼다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채혈하시는 선생님**이 친절하고 안 아프게 주사를 잘 꽂으셔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맘에 들었어요. 넓은 주차장과 접수 시 친절하셨던 남자쌤(제가 원하던 의사쌤이 내시경 스케줄이었지만 진료받을 수도 있으니 간호사에게 말해보라고 알려주셨어요)과 **간호사쌤 진료해주신 의사쌤, 아주 만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문진 작성할 때 옆에 도우미가 계셨는데 정말 당황하지않고 잘 접근할수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 글자가 빨리 잘 안보이는데 한 줄 한 줄 짚어주셨기 때문에 편하게 작성하고 검진을 잘받을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잘해주셔서 끝나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나올 때 안보이셔서 아쉬웠습니다. 그 분 칭찬해요. 긴 머리에 아이 셋 엄마셨어요. 대신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스템 넘 좋습니다. **내분비내과 간호사님 2명 모두 친절해서 좋아요. 선생님도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됩니다.**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님 모두 친절하셔서 좋아요! 인상 깊었던 부분은 초음파 볼 때 바르는 젤이 보통 상온에 있는 그대로 바르기 때문에 바를 때 조금 차가운데 여기서는 사람 체온만큼 따뜻하게 해 놓고 바르니까 차가워서 놀라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신경 써 주시는 병원에 감사드립니다.**

내분비내과(갑상선과) 간호사님의 친절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 중 하나이겠습니다만,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이만한 친절도를 보이는 간호사님은 드물거든요. 이런 분께는 인센티브라도 충분히 줘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명찰을 차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그 두 분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친절인데요. 어제 접수처에서 제가 이틀동안 아무것도 못먹고 물만 마시고 병원갔는데 또 올라왔어요. 제가 닦고 있으니 젊은 남자분이 괜찮다며 물걸레로 치워주셨어요. **너무나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3층 맨 왼쪽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입구 안내, 접수, 내분비내과, 전문의 교수님, 채혈, 청소 이모님, 간호사 모두 타병원에 비해 아주아주 적극적이고 인사성 밝으시고 친절하셔서 감사했음

오전 내분비내과 담당 간호사 분이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7병동 저녁 청소 여사님, 종이박스를 테이프를 떼서 버릴려고 했는데 밝게 "제가 할게요."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선생님, 장선생님(?) 정말 정성껏 치료를 하는 선생님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또, 장선생님도 역시 정성껏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맘모그라피 촬영 선생님, 성함은 모르겠는데 **6/20 토요일 10시쯤 검사해주신 선생님**입니다. 검사가 힘들었는데 미리 힘들다고 말씀해주시고 검사 과정이나 통증을 잘 설명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불편했던 검사를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방 데스크 선생님 2분, 성함은 보지 못했는데 검사 준비나 응대를 친절하게 해주셔서 유방초음파라는게 좀 불편할 수있는데 마음이 놓이고 좋았습니다.

7층 청소여사님, 늘 웃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청소 또한 너무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7층의 해바라기님은 청소 여사님이십니다.**

7층 주간 청소 이모님, 굉장히 친절하시고 깨끗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하십니다. 늘 밝은 얼굴로 인사해주셔서 병원 생활이 즐겁네요!

5층 간호사님들, 항상 밝은 얼굴로 환자를 대해주시는 천사의 얼굴 5층 간호사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 가득 감사글 남겨주신 고객 분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달의 칭찬 직원들

7층 생활재활센터 **간호사** 선생님들

어머니께서 밤에 기침을 하시면 멀리서도 들으시고 달려와서 상태 점검하시고 상세하게 환자상태 체크 및 이상이 보이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조치 취해주시고 **모든 면에서 타 병원보다 매우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내과내시경센터 **고인영** 진료부장

내과 고인영 선생님 친절하시고 좋아요!

건강검진,내시경 직원분들 정말 설명잘해주시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내과 내시경하신 고인영 선생님은 옆집 형님??처럼 너무 편합니다^^**

내과 직원분들이 친절하셨고 진료 의사 고인영 선생님도 사람을 보고 진료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요즈음 대부분 의사들은 사람 안보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진료하는데,
사람을 보고 눈을 맞추시길래 신뢰 감정을 느꼈습니다. 몸 불편하면 계속 나눔과행복병원 이용하겠습니다.

5층 생활재활센터 **구주현** 간호사

몸을 아끼지 않는 구주현 님을 친절 직원으로 추천합니다.

재활치료1팀 **김민수** 치료사

재활치료해주시는 김민수 선생님 항상 친절하게 구슬땀 흘리며 치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움되는 여러가지 운동 정보도 알려주셔서 너무 도움됩니다.
진심으로 제 상태에 대해 연구하고 살펴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6층 생활재활센터 **김보라** 간호사

6병동 김보라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재활치료팀 **치료사** 선생님들

김지수, 이시영, 박아림, 신유라, 방지현, 박용준 치료사 선생님들 칭찬합니다.
이 곳에 와서 여러 선생님을 만나서 제 몸이 너무나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한방과 **김종삼** 부장

원장님도 친절하시고 간호사님도 친절하고,
제가 김종삼 원장님을 인정하지만 제가 살고있는 곳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쉽네요..

한방과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유쾌하게 진행되는 진료 과정이 상당히 인상이 깊고 좋았으며,
앞에 데스크의 간호사 선생님의 친절함과 환자를 편하게 잘 보살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재활치료1팀 **김택호** 치료사

30분 동안 너무 짜임새 있게 잘하십니다. 칭찬합니다.
친절하고 고마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갑상선유방센터 **김현수** 부장

김현수 선생님이 친절하고 초음파 진단을 잘해주시고 간호사 선생님 모두 친절해서 지인들을 추천 많이 합니다.

내과내시경센터 **남지현** 과장

남지현 의사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어서 만족했음.

지인의 소개로 내과 남지현과장님께 처음 진료를 했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진료**해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과 간호사 님들도 접수나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간이 좋지 않아 방문한 병원인데 내과 남지현과장님의 친절하고, 편안한 진료로 너무 안도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의문이 풀렸네요.
남지현 과장님의 친절하고, 편한한 진료~~ 굿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지현 과장의 친절하고 정다운 설명과 환한 미소

내과내시경센터 **류승훈** 부장

이전에 김상우 과장님께 진료보시다가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으로 진료를 봤는데 다정다감하시네요~**

심장내과 **박민아** 과장

박민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걱정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할 생각 입니다.**
심장내과 선생님

재활치료1팀 **박시영** 치료사

치료사 박시영 운동치료 효과를 봤습니다. **고마웠어요. 잊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치료팀 **치료사 선생님들**

박아림, 서영득, 하수원, 장수윤 치료사를 칭찬합니다.
첫인상이 참 따뜻했습니다. 치료 받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셨고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모습에 마지막 치료실을 나가는 제 모습이
당당하면서도 아쉬움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갑상선유방센터 **백선미** 병원장

갑작스런 방문에도 스케줄을 맞춰주신 백선미 원장님 감사합니다.

백선미 원장님께 진료를 보기 전 혹시나 고주파절제술이 대상자가 안될까봐 너무 마음 졸이며 도착했는데
원장님이 환하게 웃어주시고 편안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신뢰가 가고 그동안 마음 고생했던 일이 스쳐지나가며
눈물이 났어요. 위치도 좋고 갑상선 전이도 없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감사했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해주신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배테랑이시고 따뜻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갑상선유두암 고주파 시술해주신 백선미 원장님. **너무나 친절하시고 환자 입장에서 잘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사후 관리도 잘 되어있어 좋아요.

백선미교수님과 예하 간호사분들의 친절함이 병원의 차가움이 아닌 따뜻함을 느끼고 갑니다.

재활치료2팀 **백영수** 팀장

2025년 8월 어느날 작업 시간에 백영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환자와의 대화와 가르침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고마웠고 가슴 벅찼습니다.
그 이후 언제나 작업 시간에는 항상 설레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보호자로서 제 딸의 마음에 치료를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신 팀장님께 깊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재활치료1팀 **서대원** 치료사

운동이야 다 비슷하지만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그 시간 운동이 항상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 **서봉수** 치료사

정말 착한 선생님이세요. **치료도 살뜰히 해주시고 마음도 좋은 사람입니다.**

재활치료1팀 서영득 치료사

매 운동(어깨)마다 철저한 재활치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 많이 드립니다.

재활치료2팀 소예찬 치료사

참 친절하고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애교가 있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 송영훈 치료사

송영훈 치료사 님은 언제나 한결 같이 정성을 다해 치료하신다.
젊은 분이 자기 맡은 바 잘 하시고 치료의 변화도 주면서 참 대견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의 환자여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큰 발전 기대해봅니다. 많이 칭찬합니다.

재활치료팀 치료사 선생님들

신지영, 이승업, 손수현, 오영민, 김한길, 이혜진, 정승진, 배현경 치료사. 고마운 선생님
+코디네이트 선생님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스케줄을 잘 조정해주시는 점 매우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 안현정 치료사

운동하였는데 최고십니다. 칭찬합니다. 또 만나뵙고 싶네요. 제 시간이 아닙니다ㅠ

재활치료1팀 양주영 치료사

정말 정직하고 치료법이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재활치료1팀 여승준 치료사

고마워요. 치료를 잘해주시고 환자를 반갑게 받아주고 참 착한 선생님입니다.

재활치료1팀 오영민 치료사

도수 치료사 오영민, 환자에 대한 친절과 최선을 다하는것 같아 고마웠답니다. 한 번 더 보고싶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 윤설아 치료사

운동을 너무 잘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치료1팀 이강민 치료사

이강민 치료사님은 항상 남보다 먼저 환자를 찾으시고 친절하고 본인의 환자에게 관심과 맡은 바 열심히 하시고 참 대견합니다. 많이 칭찬합니다.

재활치료1팀 장수윤 치료사

참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 재활치료를 해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갑상선유방센터 신수영 진료부장

신수영 선생님 얼굴도 목소리도 예쁘시고 설명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님과 직원분들 친절하셨습니다.

지인 분께 유방쪽으로 잘 보신다고 추천받아 갔습니다.
담당이셨던 신수영선생님 설명도 친절히 해주시고 다른곳에서 못 잡은걸 잡아주셔서 더욱 믿음이 갑니다.
가기 전에 홈페이지 보고갔는데 실물이 훨 미인이세요^^ 다음에도 진료받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신수영 교수님 너무 친절하세요. 유방전문의

유방외과 신수영교수님 초음파 후 유방 상태(혹)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마음이 안정되고 좋으신 의료진 신수영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신수영 과장님 소문듣고 갔는데 너무나 면밀히 봐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ㅠㅠ
걱정 많이 하고 갔는데 맘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방센터 간호사 선생님들두 친절히 대해주셔서 넘 감사했습니다 진료 잘 받았어요~

신수영 선생님께 갑상선과 유방 진료보고 있어요~
너무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셔서 항상 믿음이 갑니다.
온화한 미소로 진료보고 오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초음파해주신 신수영선생님 **너무 친절하게 차분히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신수영 선생님, 진료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갑상선. 유방센터 신수영 선생님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신수영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미소 감사합니다.

신수영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 꼼꼼함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진료 해주심 . **만족도100%**

재활치료2팀 **탁현우** 치료사

선생님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건강증진센터 **최지윤** 팀장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최지윤 팀장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꼼꼼하게 챙겨주어서 플랜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6층 생활재활센터 **이유정** 간호사

6층 이유정 파트장님을 칭찬합니다. 환자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성향, 스타일, 성격 등)
설명도 잘해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힘이 나고 의지도 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과내시경센터 **정민정** 과장

모든 직원 분들이 밝고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특히 정민정 과장님의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내과 정민정선생님, 여직원분들 아주 친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학과 **황은교** 과장

가정의학과 선생님과 초음파 선생님의 친절과 자세한 설명에 감동 받았습니다.

가정의학과 황은교과장님의 친절함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의 설명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주변에 건강검진을 받고자하는 지인이 있으면 꼭 소개 해드리고 싶습니다.

k-직장인의 성장 일기 2

눈치에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올해 103세인 엄마 친구 어머님께서 남기신 인생 명언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닙니다.
엄마 친구 어머님입니다.

20대였던 저는 그 한마디를 진리처럼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간에 가서도 눈치가 있어야 백하젓국을 얻어먹는다."라는
속담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 옛날 조상님들도 눈치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건가?'
역시 조상님들은 모르는 게 없으신가 봅니다.

103세 어르신의 말씀에 조상님들까지 한마디 보태시니,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분위기를 맞추고,
상황을 먼저 헤아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눈치 레이더를 풀가동하며 살았던 셈입니다.

신입 시절에는 매서운 말로 중무장한 선배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왜 그것도 모르냐."
"다시 해."
"아까 말했잖아."

혹시 또 혼날까,
혹시 또 실수할까.
하루 종일 긴장하다 보면 퇴근할 무렵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도 꽤 힘든 노동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어느덧 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배 대신 팀원들의 눈치를 봅니다.
예전처럼 무서운 말은 듣지 않습니다.
대신 맞는 말만 하는 팀원들 앞에서
'내가 놓친 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다른 종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신입 때도,
팀장이 된 지금도
눈치는 여전히 직장인의 일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가 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눈치는 실력이지만,
그 실력을 오래 유지하는 건 체력이라는 것을.

몸이 지치면 사소한 말에도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지치면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차집니다.

좋은 판단도,
배려도,
여유도
결국은 버틸 힘이 있어야 나옵니다.

눈치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실수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씩 길러지는 힘입니다.

처음부터 눈치가 좋은 사람은 드뭅니다.
다만 경험이 쌓일수록 상황을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뿐입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행착오는 내일의 눈치가 되고,
나를 잘 돌보는 시간은 내일의 체력이 됩니다.

그렇게 쌓인 눈치와 체력은 결국
누군가를 이해하는 여유가 되고,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눈치도,
체력도,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체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놓고 보니 문득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이라고는 숨 쉬기 운동밖에 하지 않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잠시 반성했습니다.
이왕 말한 김에, 저부터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치만 보지 말고,
제 몸도 조금은 챙겨보려고 합니다.

물론...
운동 계획은 세웠습니다.

다만 퇴근 후의 저는
지금의 저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못 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차피 퇴근 후의 저와는
내일도 다시 협상해야 하니까요.

K-직장인은 그렇게 오늘도 내일을 예약합니다.



영양팀
김정희 팀장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서른두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32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김치찌개 한상

“양은냄비에 보글보글 끓인 엄마표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가끔은 화려한 음식보다
양은냄비에 보글보글 끓여 식탁에 올려주시던
엄마의 김치찌개가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한 숟갈만 떠도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만들던 그 익숙한 맛 말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영양팀에는 양은냄비도 없고, 엄마도 없습니다.

하지만 집밥 같은 정겨움과 한 끼의 든든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번 달 요청 메뉴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치찌개 한상!
그리고 김치찌개만 주인공으로 세우기엔 조금 아쉬워,
한국인의 소울푸드 대표 선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의 김치찌개에
양념이 쏙 배어든 제육볶음, 정성껏 말아낸 계란말이
그리고 싱그러운 상추쌈까지 더했습니다.

이 정도면 밥 한 공기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뜨끈한 김치찌개 한 숟갈에
제육볶음 한 점, 폭신한 계란말이,
싱그러운 상추쌈까지 곁들이며
잠시나마 집에서 먹던 그 따뜻한 한 끼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양팀은 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한 끼를 준비하는 마음만큼은 엄마의 정성을 닮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은 아니어도,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한 끼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먼저 보는 사람, 먼저 걷는 사람

AI라는 변화를 병원의 배움으로 만들기까지

> 대다수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는
>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 새로운 것을 잘하지 못하면
>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다.
> _신수정, 『거인의 리더십』, 앳워크

챗GPT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이 우리 병원과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병원은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었다. 진료실에는 의사가 있어야 했고, 치료실에는 치료사가 있어야 했으며, 병실에는 간호사의 손길이 필요했다. 특히 홍보팀에서 글을 쓰는 나에게 인공지능은 더욱 낯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랫동안 병원 블로그의 글을 직접 써왔다. 수많은 시도와 경험을 거치면서 질환 정보를 나열하기보다 병원에서 일어난 작은 장면을 붙잡아 글로 옮기고 있었다. 내가 읽은 책의 문장을 글의 첫머리에 놓고, 참여자라는 호칭이나 소망정원의 모종, 재활코치의 한마디를 통해 병원이 바라보는 방향을 이야기했다. 한 문장을 고르기 위해 책장을 오래 넘기고, 사진 속 사람의 표정을 다시 보며 문단을 고쳐 쓰는 방식이 내게는 익숙했다.

그런 내게 어느 날 원무팀 파트장이 말했다.

"팀장님,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AI를 이용해서 글을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다. AI가 병원 현장의 온도와 사람의 마음까지 글에 담을 수 있을까 싶었다. 돌이켜보면 AI가 내 일을 대신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것 같다. 익숙한 방식에서는 길을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세계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원무팀 파트장의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AI가 사람의 일을 빼앗는지부터 걱정하기보다,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제안이었다. 결국 그날 저녁 나는 도서관으로 가서 AI 관련 책 다섯 권을 빌렸다. 생성형 인공지능, 프롬프트, 자동화 같은 단어들은 낯설었지만 책을 펼치자 막연했던 두려움은 조금씩 공부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다.

마침 그 무렵 병원에서는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에 관한 정보와 사례를 알리기 위한 블로그를 준비하고 있었다. 병원장님과 의료진 한 분, 나, 원무팀 파트장이 함께 단체대화방을 만들었고,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AI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수정하고, 의료진의 설명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했다. AI는 때로 틀린 정보를 말했고 병원 현장의 맥락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이 방향을 잡고 의료진이 정확성을 확인하자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다.

AI는 내 글을 대신 쓰는 존재가 아니었다. 내가 더 많이 질문하고, 더 정확히 확인하며, 문장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협업 도구였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 더 올려놓는 일이었다.

> 새로운 것, 낯선 것을 용기 있게 먼저 보며 '함께 보기'를
>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리더'다. 남들보다 먼저 보는
> 리더의 새로운 시선이 '공유'될 때 사회는 발전하고
> 구성원들은 성장한다.
> _김정운,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병원의 AI 도입은 병원장님이 새로운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3년 초, 병원장님은 문서작업에 익숙한 원무팀 파트장에게 AI와 자동화를 연구해보라는 과제를 주었다.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던 그에게 화면을 가득 채운 코드는 막막한 세계였을 것이다. 자동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원무팀 파트장은 멈추지 않았다. 당시 사용할 수 있던 챗GPT와 Bing AI, 구글 바드 등을 직접 사용하며 장단점을 비교하고, 병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갔다. 처음부터 능숙했던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도 계속 시도했다. 잘되지 않은 결과도 다시 들여다보았고, 자신이 알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된 내용을 혼자만의 능력으로 남겨두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병원장님의 시선과 원무팀 파트장의 실행이 만나자 개인의 공부는 병원의 흐름이 되었다. 2023년에는 치료팀과 간호팀 등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첫 AI 기초교육이 진행되었고, 2024년에는 교육 범위가 더 넓어졌다. 직원들은 논문 번역과 문서 정리, 글쓰기와 자료 작성 등 각자의 업무에서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AI는 더 이상 뉴스에서만 듣는 기술이 아니라 병원 안의 실제 업무를 돕는 도구가 되어갔다.

2025년부터는 단순한 활용을 넘어 각 부서에서 AI 사용을 이끌 수 있는 내부코치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첫 교육이 기대만큼 완벽한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병원 안의 관심은 커졌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후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었고, 데이터와 대시보드, 앱스 스크립트, 웹 개발처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장되었다.

2026년에는 교육생들이 직접 업무에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고 발표하는 자리까지 이어졌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작은 과제가 여러 부서가 함께 배우는 교육이 되었고, 새로운 도구를 다른 직원에게 전하는 내부코치들이 생겼다. 병원은 AI라는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고 조직 안에 확산하는 방법을 익혀가고 있었다.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며 나는 원무팀 파트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내게 AI 글쓰기를 제안했고,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화를 공부했으며, 새로운 도구가 나올 때마다 직접 사용해본 사람이었다. 병원장님이 새로운 방향을 열었다면, 원무팀 파트장은 그 길을 먼저 걸으며 다른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의 턱을 낮춘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혼자 공부하던 사람이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는 병원의 AI 교육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다. 그의 시행착오는 다른 직원들의 시작점이 되었고, 개인이 얻은 지식은 공유를 통해 병원의 자산이 되었다.

병원에서 AI가 사람을 대신한 것은 많지 않다. 의사는 여전히 판단하고, 간호사는 사람의 상태를 살피며, 치료사는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돕는다. 다만 AI를 통해 반복되는 일을 줄이고 자료를 더 빠르게 정리하며, 익숙한 업무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병원 안에 새로운 질문이 생겼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최선인지, 이 일을 조금 더 잘할 방법은 없는지 묻기 시작했다.

변화는 새로운 도구 자체보다 그 도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원무팀 파트장의 성장은 그래서 개인의 성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한 사람이 먼저 배운 일이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되었고, 병원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처음의 문장처럼 사람들은 익숙함을 벗어나는 두려움 때문에 변화에 저항한다. 나 역시 내가 오랫동안 해온 글쓰기의 방식이 있었기에 AI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AI는 내가 쌓아온 경험을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질문하고, 더 정확하게 확인하며, 내가 써야 할 문장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다.

병원의 변화도 같았다. 병원장님은 결과가 보이기 전에 가능성을 먼저 보았고, 원무팀 파트장은 그 가능성을 실제 업무로 옮겼다. 리더가 새로운 방향을 열고, 누군가가 낯선 길을 먼저 걸으며, 여러 직원이 그 뒤를 함께할 때 변화는 한 사람의 실험을 넘어 조직의 문화가 된다.

리더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먼저 발견하고 구성원들에게 함께 바라보자고 말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열린 문을 실제로 통과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우리 병원에서는 병원장님이 문을 열었고, 원무팀 파트장이 먼저 그 문을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길을 이어가고 있다.

몇 년 전 원무팀 파트장이 내게 건넨 말은 이제 병원 안의 여러 사람이 함께 묻는 질문이 되었다.

"이 일을 AI와 함께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다. 익숙함에만 머물지 않는 법, 잘하지 못할까 봐 피하는 대신 함께 배우는 법을 익혔다. 새로운 변화를 먼저 바라보는 리더의 시선과 기꺼이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의 용기가 만날 때, 병원은 조금씩 다음 시대로 나아간다.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원고모집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는 공간으로 운영중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사진 한 장, 짧은 글 한 줄도 모두 환영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직접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께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홍보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료에 해당하는 사은품은 당월 응모량 및 글 내용을 반영하여
브랜딩실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사이프러스가 있는 푸른 밀밭》 Green Wheat Field, 1889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73 × 92.5 cm
프라하 국립미술관 National Gallery Prague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51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6년 07월 31일
편집인 브랜딩실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